



지원 스님은 ... 1966년 송광사 입산, 법흥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74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 선학과를 졸업했다. 84년부터 현재까지 부산 문수사 주지를 지내고 있으며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장, 사회문화특보, 제11대 총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산문에 부는 바람> <걸망도 내려놓고 마음도 내려놓고> <이별 연습>이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남북 분단은 어른들이 지은 ‘업’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산에서 따먹을 열매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들을 보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스님은 정치와 별개로 남북민간교류의 활성화, 특히 아이들과 여성을 보살피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의집 운영 지원... 불자 관심 절실 스님의 발원은 원폭피해자 2·3세들의 심터인 ‘합천 평화의 집’ 개소에도 이어졌다. 210년 3월 개소한 한국원폭2세 환우 심터 ‘합천 평화의 집’은 환우 지원 사업과 국내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평화의집은 심리치료프로그램과 희생자 추모제 등 물질적인 지원을 넘은 이들의 안식처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합천 지역이 가장 원폭 피해자들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더군요. 전쟁의 잔재로 인해, 그 영향 하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지금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어요. 2012년 민간단체들이 주도한 합천 비핵·평화대회를 평화의집이 주도한 것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평화의집은 흥보대사가 마라톤을 1km를 땀 때마다 100원씩 기부하는 기부캠페인을 펼치기도 해 큰 관심을 받았다.

“원폭 2세대 사람들은 이제 병들고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그들의 병은 누가 치유해 주어야 할까요? 그들이 여성을 조금이라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불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위드아시아’로 이제 세계인과 함께 스님은 이후 인도를 비롯해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등 세계 각국과 소수민족 절대빈곤층의 고뇌도 끌어안았다. 바로 2011년 ‘위드아시아’의 창립이다. 스님은 참여불교운동본부와 이매 새롭게 NGO단체로

발돋움 시켰다. 지구상 곳곳의 절대빈곤층의 고뇌도 끌어안았다. 1999년부터 중국 조선족 돕기 사업을 필두로 전개한 사업은 10여 년 동안 아시아 각국의 절대빈곤층 지원 사업으로 이어졌고 2011년 대북인도지원단체인 사단법인 참여불교운동본부와 통합하면서 사단법인 위드아시아를 탄생시켰다.

“국내와 북한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다보니 지구촌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시선이 들리더군요. 하루 한 끼를 못 먹어 굶주리며 죽어가는 아이들, 오열된 웅덩이 물을 마시고 배앓이를 하다가 죽어가는 아이들... 등 작은 도움이면 이런 아이들이 죽지는 않고 자랄 수 있습니다.”

위드아시아는 인도 불가촉천민 대상 학교를 비롯해 인도·태국·캄보디아·미얀마 등에 공부방과 학교를 건설하는 교육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 스님이 교육 사업에 집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 근본적인 빈곤을 퇴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위드아시아 드림나래센터’를 개원해 드림마을을 구성한 상태입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우물 파기 등 기초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벌이고 있어요. 여러 후원자들의 소중하고 정성어린 마음을 모아 앞으로 더욱 나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스님은 앞으로 여성동안 소외계층을 돌보는데 헌신하겠다고 불자들의 참불교정신 발현을 기원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의 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위에 눈을 돌려 관심과 나눔 배려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힘든 삶을 헤아려 어려움을 나누고 치유하는데 함께 도움을 주는 이들이 많다면, 우리 사회의 행복과 희망은 더 커지지 않을까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캄보디아 드림 나래 센터 개원식 모습. 위드아시아는 현재 미얀마·캄보디아·인도 등지에서 구호 활동 중이다.

### 전법일기

## 군법회의 먹을거리 X파일

올해로 통도사 강원에서 생활하다 입대하니 16년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는 배고픈 곳입니다. 특히 한창 나이인 장병들이 느끼는 배고픔은 더합니다.

군법사로 살다보면 종종 부대에서 점심을 해결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한번은 전방의 대대를 방문했는데 대대장께서 병사들과 동석 식사를 하며 격려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저야 당연히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점심 메뉴가 ‘돈가스’였던 것입니다. 배식대에 긴 줄이 서있는 가운데 대대장과 제가 배식을 받는 차례가 왔습니다. 대대장은 눈치도 없이 자신의 분량을 떠서 먼저 자리로 갔습니다. 육식을 좋아하지 않던 저는 데 뒤에 있는 병사에게 제 몫까지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병사는 돈가스 두 개를 자신의 식판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작은 소동이 벌어져 겁니다. 제 뒤에 있던 병사가 돈가스 두 개를 식판에 올려놓는 것을 본 다른 병사들이 할당량은 분명 개인당 한 개 임에도 불구하고 돈가스를 두 개씩 식판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배식하는 과정에서 한 개씩 암묵적으로 지켜오던 룰이 깨진 겁니다.

장병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두 개씩 뜯 장병들의 식판이 식탁에 올려지자 심지어 이미 식사를 마친 병사들도 여럿이 돈가스 한 개를 더 먹었다고 배식대로 몰려들었습니다. 약 3분 만에 식당 배식대 인근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한 개씩 갖고 가도록 공지를 하고서야 이런 사태가 진정됐습니다.

이런 먹거리에 대한 욕구는 법회에도 여전히 남



그림·박구원

다. 법회가 시작되면 군중병들은 법회 인원을 세기 위해 신발장으로 갑니다. 바로 공양물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후화가 몇 겹레 있는지를 세어보고 이를 토대로 공양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법회 후 간식을 나눠주면 공양물이 남는 경우보다 모자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군중병이 분명히 정확하게 인원을 계산하고 간식을 준비하는데도 이상하게 항상 간식은 모자랍니다.

누군가 분명 한 개를 더 먹은 모양이지요. 문제는 옆에서 한 개를 먹던 병사들이 옆에서 몰래 두 개를 먹는 병사를 보면 자신도 하나를 더 먹으려는 심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의 간식이 누군가가 시주한 보시물인데, 남들이 하나 더 먹는 것을 보면 자신이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법사 입장에서는 간식 하나 더 챙겨주고 싶지만, 그 것도 한두 명에 한두 번입니다. 일 년 내도록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만약 통제가 되지 않으면 간식 소요량이 늘어날 뿐입니다.

한창 나이에 잘 먹어야 할 장병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부족한 간식이 애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없는 살림에 정이 난다고, 부족하지만 더욱 그들을 위해 마음을 쓰게 됩니다. 일요일 법회에서는 장병들은 법회 후 작은 공양을 합니다. 초코파이 하나에 음료 하나 일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제과점 빵에 플라가 한 캔씩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공양물들은 부대 신도들이 낸 월정 헌공금과 초파일에 올려진 연등 공양비, 그리고 민간 사찰 등에서 후원받은 보시로 구매한 것들입니다.

일선 교회와 연결된 군교회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낫겠지요. 다른 종교보다 못한 간식을 주는데도 일요일이면 법회에 나와 부처님 말씀을 듣는 청년들을 보면 아주 흐뭇합니다.

군법당에 지원이 없다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빵 하나가 두 개가 되고 음료수 하나가 두 개가 되겠지요. 그만큼 이들이 법당을 찾는 마음도 푸근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힘든 상황에서 군법당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땅의 장병분자들과 알게 모르게 군법당을 위해 시주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정형 이익수 군승 법사(육군학생군사학교 학림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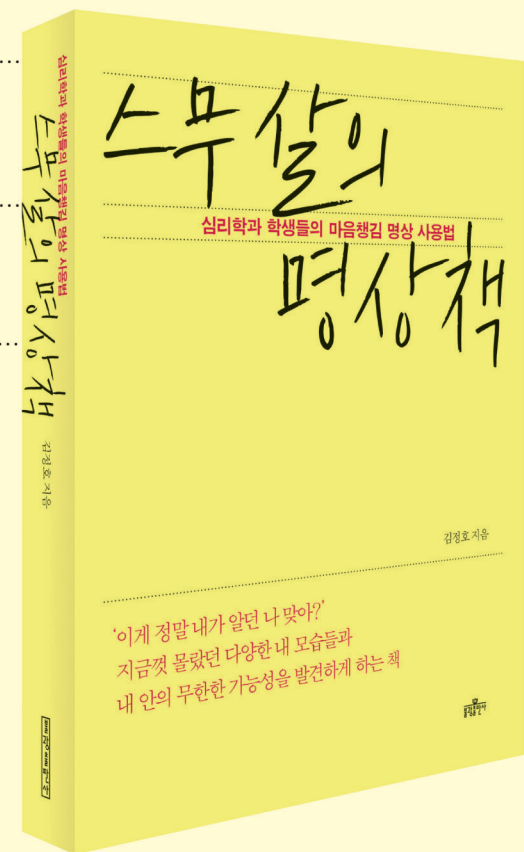


## 스무살 심리학과 학생들, 평상에 빠진다

8주 동안 먹고, 공부하고, 명상하며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 확 뒤바뀐 심리학과 학생들의 리얼 명상 체험기

명상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며, 명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마음행기 명상 사용설명서

김정호 지음 | 352쪽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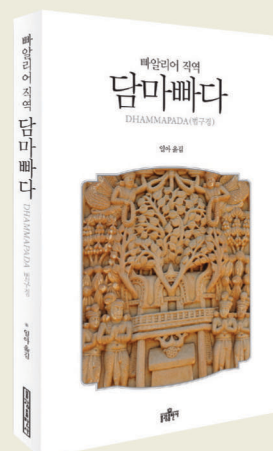


## 빠알리어 직역 담마빠다 DHAMMAPADA (범구경)

정확한 번역, 간결한 문장, 손에 꼭 맞는 판형으로 만나는 빠알리어 원전 번역 담마빠다(범구경)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어 경전』의 일야 스님이 수년에 걸쳐 공들여 작업한 담마빠다 번역의 정본

일야 스님 옮김 224쪽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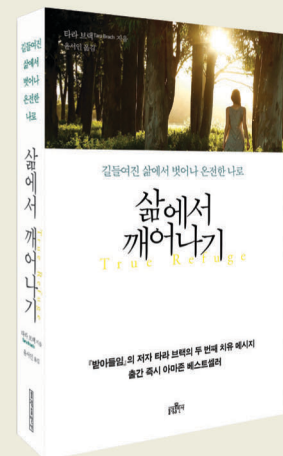
길들여진 삶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로

## 삶에서 깨어나기 True Refuge

삶에서 깨어난다는 건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 날 믿고 산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소중함 사람의 이별, 흔들리는 인간관계, 위중한 질병,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 외로움과 좌절 앞에 휘청거리는 당신에게 전하는 치유 메시지

타라 브랙 지음 | 윤서인 옮김 480쪽 | 20,000원



2014. 3. 18. 불광출판사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뀝니다!

www.bulkwang.co.kr